

축 사

대한불교조계종은 정화불사이후 지계 청정한 수행승단으로 그 모습을 완성해 나아가야 한다는 원력아래 1981년 2월 제1회 단일계단을 통도사 금강계단에 설치하여 사미계를 수계하고, 같은 해 11월 해인사 금강계단에서 구족계를 수계하는 것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.

정화 초기 이후 80년대까지 통도사·해인사·범어사를 중심으로 봉행된 구족계 수계의식은 년1회 내지 수년에

한 번씩 부정기적으로 봉행되었던 수계의식을 당대의 대울사였던 자운 성우 대울사께서 발원하여 매년 단일계단을 개설하여 교육과 수계를 통해 여법한 청정승가를 만들고 신심과 원력을 구족한 수행자를 배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구족계 수계 후 5년까지 계율을 공부하게 했던 옛 전통에 비하면 아직은 울장 교육시간이 미미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

이처럼 어려운 시대상황을 청정승가

**구현과 지계청정한 수행자를 배출하기
위한 신심과 원력으로 정진해 온
단일계단이 올해로 30년을 맞이하게
되었고, 지난 2000년에 「단일계단 20년」
이라는 소중한 자료집을 봉정한 이후
오늘 「단일계단 30년」을 부처님 전에
봉정하게 되었습니다.**

**이는 지금까지 조계종 단일계단에
동참한 모든 율사스님의 피땀으로,
간절한 염원과 노력으로 이루어 낸
참으로 값진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.
이러한 노력에 의해 종단은 교육·행정·**

**포교·복지·법계·고시 등 모든 면에서
안정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고,
이러한 바탕 위에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
실천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
신뢰를 받는 종단, 그리고 만 중생의
복전이 되는 청정승가로 그 모습을
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.**

**그동안 단일계단 30년의 수승한
공적을 만들어낸 모든 계단 관계자스님
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 보다 여법한
종단, 청정한 승가, 청정한 지계정신
으로 수행하는 수행풍토를 만들기**

**위하여 지속적으로 결계와 포살을
시행하고 각종 수계산림에 원만한
교육과 수계가 이루어지도록 종단행정의
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
노력하겠습니다.**

**다시 한번 단일계단이 출범한 이후
30년을 헌신적으로 운영해 오신
계단위원회 모든 스님들의 공덕을
찬탄하고 여법한 종단, 청정승가구현을
위해 힘써 정진할 것을 부처님 전에
발원합니다.**

불기 2554년 10월 13일

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